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문화교류 확대에 뜻 모아

- 9. 16. 최휘영 장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 장관과 면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6일(수) 오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 구르반미라트 시흐미라도비치 미라달리에프(Gurbanmyrat Shyhmyradovich Myradalyyev) 장관을 만나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처음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9. 14.~16.)’를 계기로 마련한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 장관은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문학 분야 교류와 관광을 통한 인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문학은 양국의 문화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문화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국의 우호 관계도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문화센터 문화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문화센터와 문화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국제 문화정책 관 국제 문화정책 과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3311)
		담당자	사무관	최수진 (044-203-3318)

